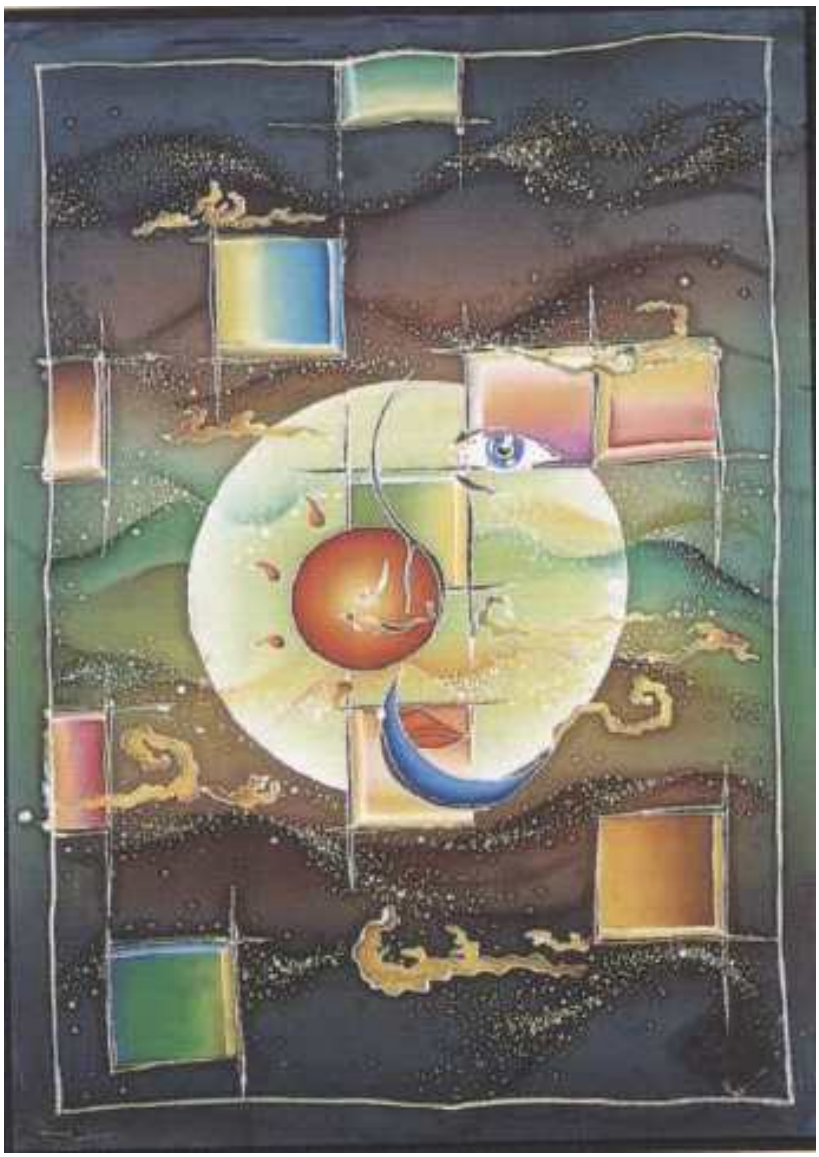
방법은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지학 국어 I 교과서 강의록

이성호 저



방법은있다

<표지 안쪽>

방법은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지학 국어Ⅰ 교과서 강의록

이성호 저

지학사 국어Ⅰ의 모든 본문과 작품을 철저하게 분석

활용성이 뛰어난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 제시

전 EBS 집필자가 학교 강의를 바탕으로 저술

방법은있다

이 책을 지은이

이성호 선생님

서울 여의도고, 언남고, 양재고, 문현고를 거쳐 현재 서초고등학교 국어과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EBS 국어영역 출제위원
현 아이러브언어닷컴(www.iloveuno.com) 수석 출제·상담위원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 〈원리와 방법편〉 〈독해/논리편〉 〈현대시/고전시가편〉 집필(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국어 만점과 3점·취약점도 마물 방법은있다 집필 (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로 풀이한 실전모의고사 집필 (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EBS 고교국어듣기 (공저, 한국방송공사 간행)
한국고전대표설화 집필 (편저, 관동출판사 간행) 백범 김구 집필 (현대어역저, 관동출판사 간행)
한국 수능 학습지 출제 위원 역임

수능 국어 한 눈에 보이는 **방법은있다** - **지학 국어 I 강의록**

지은이 | 이성호

차 례

1. 글에서 길을 묻다

(1) 예술로서의 문학

첫사랑 ····· 5

(2) 소통으로서의 문학

칼의 노래 ····· 12

(3) 삶을 위한 독서

과학자의 서재 ····· 17

2. 읽고 쓰고 생각하고

(1) 독서의 특성과 방법

유전자 변형 식품의 두 얼굴 ····· 21

(2) 작문의 과정과 관습

옛 그림의 원근법 ····· 26

3. 바른 말 바른 글

(1) 음운과 음운 체계 ····· 29

(2) 한글 맞춤법 ····· 36

4. 글의 개성을 찾아서

(1) 발상과 표현의 개성

동짓ᄃᆞᆯ 기나긴 밤을 ····· 57

(2) 관점과 문체의 개성

봄 · 봄 ····· 59

(3) 개성이 있는 글 쓰기

부러워하지 않으면, 그게 지는 거다 ····· 72

차 례

5. 말과 글의 품격

(1) 공감하며 듣고 공손하게 말하기

해님과 바람 ····· 75

(2) 타인을 배려하는 언어생활

말이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 83

6. 문학의 숲을 거닐다

(1) 서정 갈래의 이해

너를 기다리는 동안 ····· 86

(2) 서사 갈래의 이해

춘향전 ····· 90

(3) 극 갈래의 이해

살아 있는 이중생 각하 ····· 98

(4) 교술 갈래의 이해

통곡헌 기 ····· 110

7. 상황에 어울리는 말과 글

(1) 어휘의 체계와 양상 ····· 112

(2) 상황에 맞는 글 쓰기

깊고 그윽한 빛의 마을, 하동 ····· 121

제1단원 1과

1. 첫사랑 -고재종

핵심 정리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운율 : 내재율
성격 : 역설적, 낭만적, 비유적, 시각적
어조 : 경탄과 예찬의 어조
제재 : 겨울날 가지에 핀 눈꽃
주제 : 아름다운 사랑을 맺기 위한 시련과 고난 및 헌신
표현상의 특징
①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율격을 강화하고 있다.
② 설의법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③ 비유법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시적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역설적 표현으로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⑦ 자연 현상에서 인간적 의미를 발견해 내고 있다.

시 해석력 높이기

나뭇가지와 눈의 첫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첫사랑은 결코 쉬운 사랑이 아니라 엄청난 도전으로 빚은 사랑이다. 결코 오래 갈 수 없는 첫사랑을 위하여 눈은 수없이 두드리고, 춤추고, 미끄러지는 도전과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펴'붓는 정성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다. 첫사랑의 결실은 황홀한 눈꽃으로 피어난다. 봄은 첫사랑을 잃게 하고, 나무의 첫사랑을 잃은 아픈 고통은 역설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상처 즉 진짜 꽃으로 이어진다. 화자는 여기서 인간적인 의미를 발견해 낸다.

◉ 시에서 반드시 학습해야 할 원리

1. 상징
2. 반어, 모순 형용·역설, 풍자, 표현 기법과 발상
3. 심상
4. 시어의 의미 · 기능과 생략된 시구
5. 운율
6. 형상화
7. 시적 화자의 정서 · 태도
8. 비평 관점과 올바른 감상
9. 표현상의 특징

▼ 배경 원리 - 모순 형용과 역설, 반어

1. 모순 형용(矛盾 形容, oxymoron) : 모순 형용은 서로 모순 대립되는 말의 병치(竝置)로 특수 효과를 얻으려는 시의 기법으로 수식어와 피수식어 사이에 모순 관계가 이루어지는 진술 방식인데 표층적 역설이라고도 한다.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거나 관심을 끄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나스탤지아의 손수건 – 유치환, 깃발

소리가 없으면 아우성이 못 되고 아우성이면 소리가 커야 하므로 진술의 앞부분이 성립되면 뒷부분이 성립되지 않고 뒷부분이 성립되면 앞부분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순 형용이다.

예문보기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 정지용, 유리창 I

예문보기

깊이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예문보기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 조지훈, 승무

2. 역설(逆說, paradox) : 겉으로 보면 명백히 모순되고 이치에 닿지 않는 듯한 표현 속에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진술 방식인데 심층적 역설이라고도 한다. 모순 형용이 앞 말과 뒷 말 사이의 언어적 모순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비해 역설은 내용 자체가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그대로 진리를 담은 표현이다.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거나 관심을 끄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가난하지 않기 위하여
가난한 시를 쓴다. – 임강빈, 부재(不在)

가난하기 않기 위해서는 부유한 시를 써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 가난한 시가 물욕을 다 떨쳐버린 시를 의미한다고 본다면 이 표현은 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설이다.

예문보기

비료값도 안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 신경림, 농무(農舞)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에 대한 시름에 울음이 나올 판인데도 농무에 취하니 신명이 난다고 표현하고 있다. 자칫 반어로 오인할 수도 있으나 춤이란 슬픔 속에서도 사람을 취하게 하는 요소가 들어 있다고 대부분의 심리학자는 말하고 있으므로 역설이 된다.

예문보기

이런 경이(驚異)는 나를 늙게 하는 동시에 젊게 한다.
아니, 늙게 하지도 젊게 하지도 않는다. – 김수영, 현대식 교량

예문보기

사랑의 속박은 단단히 얽어매는 것이 풀어주는 것입니다. – 한용운, 선사의 설법

예문보기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조지훈, 승무

3. 반어(反語, irony) : 표현한 것과 표현의 의도가 상반된 진술 방식, 따라서 반어적 표현에는 '말한 것'과 '의미한 것' 사이의 긴장, 대조, 혹은 갈등이 담겨 있다.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거나 관심을 끄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고이 보낼 수 없는 심정을 담은 반어적 표현이다.

예문보기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말이 『잊었노라』 – 김소월, 먼 후일

적어도 그때까지는 못잊겠다는 반어적 표현이다.

예문보기

아침 저녁으로 샛강에 자욱이 안개가 낀다.
안개는 그 읍의 명물이다.
누구나 조금씩은 안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
여공들의 얼굴은 희고 아름다우며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모두들 공장으로 간다. – 기형도, 안개

'희고 아름다우며'는 하얗게 병든 모습을,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는 '고생 속에 어렵게 자라'를 의미하는 반어이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꽃(은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의인법, 설의법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도전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보았겠지〉
동어 반복→율격 강화, 의미 강조. <의인법>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대구법(의미의 율격, 율격 강화)
어지러이 흩날리고 동어 반복→율격 강화, 의미 강조. 의인법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동어 반복→율격 강화, 의미 강조 <의인법>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도전의 구체적인 내용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이루기 어려운 사랑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정성과 헌신 <의인법>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눈꽃(은유법) <경탄과 예찬적 어조>
▶도전 끝에 피운 눈꽃의 아름다움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덴 자리에
첫사랑의 아픈 추억(상징) 혹은, 눈꽃을 피웠다가 잃어버린 자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역설, 꽃(→은유법)
▶눈꽃이 있던 자리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남

봄 **-반칠환**

저 요리사의 솜씨 좀 보게
봄(의인법)
〈누가 저걸 냉동 재룐 줄 알겠나〉 대단하다는 의도를 포함 : 예찬적
싹과 꽃 겨울을 인내해 온 것인 (설의법→ 의미 강조)
푸릇푸릇한 저 싹도
의태어(동일 어절 반복 : 율격 강화)
울긋불긋한 저 꽃도
의태어(유사 어절 반복 : 율격 강화)
꽝꽝 언 냉장고에서 꺼낸 것이라네
의태어(동일 음절 반복 : 율격 강화) 겨울(은유법)
〈아른아른 김조차 나지 않는가〉 대단하다는 의도를 포함 : 예찬적
의태어(동일 어절 반복 : 율격 강화) 아지랑이(은유법) (설의법)
▶인내로 태어난 봄의 싹과 꽃의 아름다움과 생명력

핵심 정리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운율 : 내재율
성격 : 비유적, 시각적, 예찬적
어조 : 예찬적 어조
제재 : 봄의 싹과 꽃
주제 : 인내로 태어난 봄의 싹과 꽃의 아름다움과 생명력
표현상의 특징
①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율격을 강화하고 있다.
② 설의법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③ 비유법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시적 대상의 인내심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시 해석력 높이기

'봄은 어디서부터 오는가?'라는 물음에 답하고 있는 작품이다. 봄은 남쪽에서 오는 것일까? 아니다. 봄은 겨울로부터 오는 것이다. 봄의 푸릇푸릇한 새싹과 울긋불긋한 꽃은 냉장고와 같은 겨울에서 온 것이다. 겨울을 인내한 식물만이 봄에 싹과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아른아른 거리는 아지랑이와 같은 김 즉 강한 생명력을 뽐낼 수 있는 것이다.

낙화 – 이형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성숙한 모습 설의법

▶낙화의 인간적 의미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꽃(은유법)

▶낙화의 개인적 의미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역설, 이별의 긍정적 수용
지금은 가야할 때

▶낙화의 순간이 지니는 의미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이별로 이룰 수 있는 것
머지않아 열매 맺는
이별로 이룰 수 있는 것
가을을 향하여
정신적 성숙의 시기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꽃(은유법) 성숙을 위한 희생

▶낙화의 아름다운 희생

헤어지자
이별의 긍정적 수용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의인법 : 친근감 형성)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의태어 : 율격 강화)

▶이별의 긍정적 수용

나의 사랑, 나의 결별
꽃(은유법)
샘터에 물 고인 듯 성숙하는
이별로 이룰 수 있는 정신적 가치
내 영혼의 슬픈 눈

▶이별로 이루는 정신적 성숙

핵심 정리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운율 : 내재율
성격 : 역설적, 비유적, 사색적
어조 : 긍정적 어조
제재 : 낙화
주제 : 이별로 이루는 정신적 성숙
표현상의 특징
①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율격을 강화하고 있다.
② 설의법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③ 역설적 표현으로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④ 자연 현상에서 인간적 의미를 발견해 내고 있다.
⑤ 비유법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시 해석력 높이기

제목이 낙화, 즉 떨어지는 꽃이다. 소멸의 의미와 맞닿아 있다. 화자는 대뜸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며 퇴장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낙화가 갖는 인간적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소멸과 퇴장은 이름만 다를 뿐 그 의미는 같을 것이다. 박수칠 때 떠나라는 구절이 문득 떠오른다. 등장은 쉬워도 퇴장은 어렵다.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라는 구절에서 낙화의 존재가 드러난다. 나의 사랑이란 은유적 표현으로 낙화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펄펄 날리는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할 때'라는 역설적 표현에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된다. 결별이 어떻게 축복을 이룩하는가? 그 비밀은 다음 연에 드러난다.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그렇다. 꽃이 져야 녹음이 있고 녹음이 있어야 열매가 있다. 이별은 결실은 만든다. 그러기에 나의 청춘으로 표현된 꽃은 아름답게 죽을 수 있고 결별은 축복이 되는 것이다.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시의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듦을 보시고 /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라는 구절과 일맥상통한다.

'헤어지자'며 시적 화자는 이별에 대한 긍정적 수용 태도를 드러낸다. 이어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인 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이라며 슬픔을 드러내지만 곧 '성숙'이라는 긍정적인 가치를 떠올리며 시상을 맺는다.

제1단원 제2과

2. 칼의 노래

-김훈(1948~) 소설가•언론인. 긴장감과 속도감이 느껴지는 문체의 작품을 발표해 왔다. 주요 작품으로 '현의 노래', '남한산성' 등이 있다.

핵심 정리

갈래 : 장편 소설, 역사 소설
성격 : 역사적, 사실적, 전기적
배경 : ① 시간적 : 1597년~1598년 ② 공간적 : 조선 일원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제 : 이순신의 삶과 인간적 고뇌
서술상의 특징
① 순행적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② 전투 장면을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③ 간결체를 사용하여 전투 상황을 속도감 있게 서술하고 있다.
④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활용해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체 줄거리〉

『칼의 노래』는 이순신이 백의종군을 하는 대목에서부터 시작해, 철수하는 적의 주력을 노량 앞바다에서 맞아 싸우다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에서 끝맺고 있다. 적과의 실질적인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동안에도 그는 쉴 새 없이 싸운다. 멀리서 장렬한 수사로 가득 찬 교서만 연이어 내려 보내는 임금과 싸우고, 호시탐탐 그의 목을 노리는 조정의 대신들과 싸우고, 대군을 이끌고 와서 무작정 세월만 보내고 있는 명나라 장수와 싸우고, 군령을 어기는 부하들, 울며 매달리는 가엾은 백성들과 싸운다. 그러나 시종일관 이순신이 싸우는, 싸워야 하는 궁극적 대상은 바로 자신이다. 그는 자기 마음속의 지옥과 싸운다. 그 싸움은 그 어떤 보답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그 어떤 가치의 수호도 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비극적이다.

〈전략〉

〈노량의 물결은 사나웠다.〉〈치솟는 물기둥의 허리를 바람이 베고 지나갔다.〉 적들은 바다를 뒤덮고 달려들었다. (공간적 배경 〈ⓐ〉 : 〈ⓑ〉 = 추상적 의미 : 구체적 묘사 적들의 거대하고 위협적인 형세를 표현) 검은 깃발의 선단이 서쪽 수평선을 넘어왔다. 물보라에 뒤덮여, 적선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었다. 광양만을 떠 (순천의 적〈대유법〉)
난 순천의 적들이었다. 적들은 노량 수로를 향하고 있다. 쇠나팔을 불어서 함대를 뒤로 물렸다. (적군에 대한 대응 전술을 펼침)

▶순천의 적선들이 노량 수로로 들어옴

남쪽 수평선 위에 붉은 깃발들이 무수히 나타났다. 물보라에 가려 선체는 보이지 않았고, 물보라 위로 깃발 (남해도의 적〈대유법〉)
은 나부끼며 다가왔다. 남해도에서 발진한 적 육군의 보충대였다. 오랫동안 남해도에 머문 적들이었다. 내가 닿을 수 없었던, 먼 적들이었다. 붉은 깃발들은 섬 굽이를 돌아서 빠르게 노량 수로로 들어왔다. 동트는 아침 햇
(이유 : 적은 육군이고 이순신은 해군이었기 때문. 1인칭 시점 시간적 배경)
살이 적의 붉은 깃폭 위에서 부서졌다. 다시 쇠나팔을 불어서 함대를 더욱 뒤로 물렸다.

▶남해도의 적선들이 노량 수로로 들어옴

검은 깃발의 적과 붉은 깃발의 적 사이로, 흰 깃발의 선단이 돌격 대형의 장사진을 펼치고 다가왔다. 사천의
순천 남해도 사천의 적〈대유법〉 ▮장사진(長蛇陣) 예전의 병법에서, 한 줄로 길게 벌인 군진(軍陣)의 하나.
적들이었다. 사천의 적들은 철수하는 바다에서 항로를 거꾸로 돌려 노량으로 들어왔다. 사천의 적들은 경상 연안 포구의 모든 적들을 휘몰아 왔다. 찢어진 '나무묘법연화경'의 깃발들이 적 선두에서 날개를 펼치고 다가왔다.
아군과 교전했음을 추측할 수 있음
▮나무묘법연화경 불교 경전의 하나인 '법화경'에 귀의한다는 뜻. 임진왜란 당시 이 글이 쓰인 깃발을 달고 일본이 침략함.

▶사천의 적선들이 노량 수로로 들어옴

적들의 살기는 찬란했다. 먼바다에서, 여러 방면의 적들은 합쳐지면서, 다시 거대한 반원진으로 재편성되고
적들의 살기는 무서웠다.[반어 : 1권 1단원 1과 강의록 참조] 대단히 위협적이었다. 대단했다.
있었다. 적선에 가려 수평선은 보이지 않았다. 적의 반원진은 바다 전체의 크기만 한 그물로 다가왔다. 아침 햇
적선의 수가 많음을 표현〈사실적 표현〉 ➡ 적선의 수가 많음을 표현〈비유적 표현〉
살 속에서 수천의 적기가 바람에 나부꼈다. 적의 반원진은 더욱 다가왔다. 적의 전체였다. 내 앞에 드러난 적의 모든 것이었다. 적들은 수군뿐 아니라, 철수하는 육군 병력 전체를 배에 싣고 있었다. 적의 전체는 넘실거리며 다가왔다. 적들의 이물에서 흰 물기둥이 깨어져 나갔다.
▮이물 배의 앞부분.

▶거대한 선단을 이룬 왜적선들이 쳐들어옴

『그때, 적들은 경건해 보였다. 적이 경건했다기보다는, 적이야말로, 그 앞에서 내가 경건해야 할 신비처럼
전투는 경건하게 임해야 한다는 이순신의 태도가 반영된 말로 전투에 임한 적들을 경건하게 대하는 것이 자신이 전쟁을 경건하게 대하는 것이 된다는 사고를 반영한 말.
보였다. 신비, 신비라고나 해 두자. 나는 대장선 갑판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빌었다. 무엇을 향해 빌었는지, 나는 빌고 있었다. 바다는 문득 고요했다.
이제 죽기를 원하나이다. 하오나, 이 원수를 갚게 하소서.』
『 』이순신의 독백 : ① 1인칭 주인공 시점임을 분명히 알려줌. ② 목숨을 바쳐서라도 승리하겠다고 다짐함.

▶적군의 위세를 보며 죽음을 각오함

나는 물러섰다. 적은 다가왔다. 물러서는 물길의 섬마다 복병의 선단을 떼어 놓았다. 나는 해협 쪽으로 물러
▮복병(伏兵)의 선단(船團) 적을 기습하기 위하여 적이 지날 만한 길목에 숨겨 놓은 배들.
섰다. 해가 오르자, 바람은 더욱 불었다. 바람은 적의 편이었다. 섬들이 포개진 수로 어귀에서 적의 반원진은
맞바람[역풍]이 불어왔다.
선두부터 오열 종대로 바뀌었다.

▶적선의 침공과 대응 전략

적의 종심은 길어졌다. 적들은 긴 이동 대열을 이루며 섬 사이의 수로 안으로 들어왔다. 적의 긴 종심을 길
▮종심(縱深) 예전에, 앞뒤로 늘어선 대형 · 진지 · 방어 지대 따위의 전방에서 후방까지의 거리를 이르던 말.
게 찌를 수는 없었다. 긴 종심의 저쪽 끝까지 나는 찔러 들어갈 수가 없었다. 적의 대열을 토막으로 끊어 낼 수밖에 없었다.
불화살을 올렸다. 격군장들이 북을 울렸다. 불화살은 전선에서 전선으로 번져 가며 일제히 날아올랐다. 섬
공격 개시 신호 ▮격군장 '격군'은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군사로, 격군장은 이들을 통솔하던 장수를 말함.
뒤에 배치한 내 복병의 선단들이 섬의 날뿌리를 돌아 나왔다. 복병들이 적의 대열을 옆에서 찔러 토막 내기 시작했다. 적의 대열은 흔들리면서 끊어졌다. 나는 적 쪽으로 이물을 돌렸다. 함대의 주력으로 적의 선두를 부수
▮ 주력(主力) 군대나 여러 부대 가운데 중심이 되는 전력(戰力)을 지닌 부대.
어 나갔다.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됨

위태로운 근접전이었다. 적병의 얼굴이 보였다. 복병 선단의 수졸들이 마른 볏짚을 적선으로 던졌다. 적선
ⓐ 추상적 표현 : ⓑ 묘사적 표현 ■근접전(近接戰) 가까이 붙어서 벌이는 싸움. ■수졸(守卒) 수비하는 병졸.
한 척마다 수십 단의 볏집이 날아들었다. 적병들이 볏짚을 던지는 내 수졸들을 조총으로 쏘았다. 총에 맞은 수졸들이 물 위로 꺼꾸러져 떨어졌다. 적병들이 갑판 위로 날아든 볏짚을 물 위로 집어 던졌다. 내 사부들이 볏
■사부(射夫) 활을 쏘는 군사.
짚을 던지는 적병들을 활로 쏘았다. 적병들이 물 위로 고꾸라졌다.

▶위태로운 근접전을 벌임

사부들이 적선에 쌓인 볏짚에 불화살을 꽂았다. 바람은 나의 편이었다. 적의 육군은 무장하지 않았다. 적의
순풍이 불었다.
육군은 다만 배 위에 실린 화물이었다. 불붙은 적선에서 적병들은 물 위로 쏟아져 내렸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적들이었다.

적의 선두 주력이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적은 항로를 돌려 수로를 거꾸로 빠져나갔다. 적은 다시 넓은 바다로 향했다. 적이 방향을 돌릴 때, 적선의 우현이 일제히 내 앞쪽에 노출되었다. 총통을 집중시켜 적의 우현을
■우현(右舷) 고물에서 뱃머리를 향하여 오른쪽에 있는 뱃전.
■총통(銃筒) 화전(火箭), 화통(火筒), 화포(火砲) 따위의 화기(火器)를 통틀어 이르던 말.
부수었다. 깨어진 적선들은 기울면서 물에 잠겨 갔다. 뱃전에서, 사부의 대열 한 줄이 적의 조총에 맞아 물 위로 떨어졌다. 예비 병력들이 다시 전투 위치에 도열했다.

▶바람의 방향을 이용해 적군을 공격함

날이 저물었다. 섬 사이의 좁은 수로를 벗어난 적들은 다시 먼바다로 나왔다. 적들은 근접 교전을 피했다.
시간의 경과 이유 : 화살 공격 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
적들은 화력을 일시에 집중시켜 내 함대의 허를 뚫고 노량을 벗어나려 했다. 적은 전선 수십 척을 앞으로 내보
■화력(火力) 총이나 대포 등 무기의 위력. ■전선(戰船) 전투에 쓰는 배.
내 내 함대의 화력을 돌려놓고 그 옆으로 주력을 빼돌리려 했다. 일부를 죽여서 주력을 철수시키려는 적의 의도는 초전부터 확연했다. 나는 함대를 물려 가면서 적 주력의 항로를 차단했다.

▶날이 저물자 적군의 퇴로를 차단함

〈밤중에 전투는 소강이었다.〉〈물결이 점점 높아졌다. 달은 뜨지 않았다. 배를 움직일 수 없었다.〉 가까운
〈결과〉 〈원인 : 사실성 부여〉
■소강(小康) 소란이나 분란, 혼란 따위가 그치고 조금 잠잠함.
포구와 섬들을 거점으로 적을 멀리서 포위한 채 바다에서 밤을 새웠다. 새벽에 주먹밥으로 장졸들을 먹였다. 내장이 뒤틀린 격군들이 갑판에 쓰러져 먹은 것을 토했다. 적들도 밤중에 움직이지 않았다.

▶밤이 되자 전투가 소강상태에 빠짐

다시 날이 밝았다. 바다는 고요했다. 포위망을 조이면서 적에게 다가갔다. 대열의 계통을 버리고, 적들은 산
시간의 경과
개했다. 적들은 개별적 철수를 시도했다. 적들은 바다 가득히 뿔뿔이 흩어졌다. 적들의 깃발이 어지럽게 뒤엉켰
■산개(散開) 밀집된 군대나 병력을 적당한 간격으로 넓게 벌리거나 해산하는 일.
다. 적들은 내 포위망 사이사이로 파고들었다. 내 포위망은 교란되었다. 교전하는 함대 사이로 적선들은 한 척씩 빠져나갔다.
흐트러졌다

▶날이 밝자 적군이 퇴각을 시도함

적들은 계통 없이 달려들었다. 멀리 떨어진 내 전선들이 깃발 신호를 받지 못했고, 신호는 전달되지 않았다. 함대 전체를 통제할 수 없었다. 각 방면별 수령들에게 지휘권을 넘겼다. 나는 중군(中軍)만을 인솔하고 적의 진로 맨 앞으로 나아갔다. 전투는 난전(亂戰)으로 돌입했다. 진은 무너지고 대열은 흩어졌다. 지휘 통제는 작동되
■난전(亂戰) 두편이 마구 뒤섞여 어지럽게 싸움. 또는 그런 싸움.

지 않았다. 한 척이 닥치는 대로 한 척씩을 붙잡아 들러붙었다. 모든 한 척이 전방위의 사선(射線)에 노출되어

■사선(射線) 쏜 탄알이나 화살이 지나가는 선.

있었다. 수평선 쪽의 적들도 마찬가지였다. 기나긴 하루였다. 시간은 정지한 듯 더디었다. 바다는 쓰레기에 덮

관련 성어 : 고군분투(孤軍奮鬪) 이순신의 지친 심리를 드러냄

였다. 화약 연기와 볏짚이 타는 연기에 뒤덮여, 먼 싸움은 기억 속의 싸움처럼 희미했다.

불붙은 적선들이 마지막 힘을 다해 노를 저어 와서 내 대장선의 고물을 들이받고 깨어졌다. 적병들의 시체가

■고물 배의 뒷부분.

노와 노 사이에 끼어 으깨졌다. 물에 뜬 적병들의 시체를 헤치면서 또 다른 적선이 불길을 날리며 달려와 대장선을 들이받고 깨어졌다. 적들은 사방에서 들이닥쳤다.

▶포구를 탈출하려는 적군과 난전을 벌임

다시 날이 저물었다. 해 지는 쪽의 먼 섬들이 석양에 빛났다. 화약 연기 속으로 노을이 스몄다. 바람은 잠들

시간의 경과

었다. 격군들은 기진맥진했다. 사흘 밤을 재우지 못했다. 적선 백여 척이 관음포 안 내항으로 달아났다. 거기는

■내항(內港) 항만의 안쪽 깊숙이 있는 항구.

퇴로가 없는 물목이었다. 적들은 항로를 오인했던 모양이다.

■물목 물이 흘러 들어오거나 나가는 어귀.

나는 중군을 몰아 관음포로 향했다. 거기서 포구의 어귀를 막고 안쪽을 찌를 판이었다. 적선 두 척이 내 대장선 앞뒤로 달려들었다. 뒤쪽에서 중군장이 달려 나와 앞에서 달려드는 적선을 막았다. 나는 대장선 장대에서

■장대 장수가 올라가서 지휘하던 대

소리쳤다.

— 관음포가 급하다. 관음포로 가자.

난간에 도열한 적들이, 일제히, 무더기로 쏘아 댔다.

▶관음포에 갇힌 적들과 일전을 벌임

갑자기 왼쪽 가슴이 무거웠다. 나는 장대 바닥에 쓰러졌다. 군관 송희립이 방패로 내 앞을 가렸다. 송희립은

적의 총탄에 맞음

나를 선실 안으로 옮겼다. 고통은 오래전부터 내 몸속에서 살아왔던 것처럼 전신에 퍼져 나갔다. 나는 졸음처럼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다가오는 죽음을 느꼈다.

— 지금 싸움이 한창이다. 너는 내 죽었다는 말을 내지 마라.

죽어 가는 상황에서도 국토 수호라는 대의를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냄

내 갑옷을 벗기면서 송희립은 울었다.

— 나으리, 총알은 깊지 않사옵니다.

이순신을 위로하려는 선의의 거짓말

나는 안다. 총알은 깊다. 총알은 임진년의 총알보다 훨씬 더 깊이, 제자리를 찾아서 박혀 있었다. 오랜만에 갑옷을 벗은 몸에 서늘한 한기가 느껴졌다. 서늘함은 눈물겨웠다. 팔다리가 내 마음에서 멀어졌다. 몸은 희미했고 몸은 멀었고, 몸은 통제되지 않았다.

의식을 잃어감

— 북을…… 계속…… 울려라. 관음포…… 멀었느냐?

죽어 가는 상황에서도 지휘를 계속함

송희립은 갑옷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북을 울렸다.

▶총알을 맞고서도 전투를 계속 지휘함

난전은 계속 중이었다. 싸움의 뒤쪽 아득한 바다 위에서 노을에 어둠이 스미고 있었다. 적선을 태우는 불길이 바다 곳곳에서 일었다. 등판으로 배의 흔들림이 느껴졌다. 격군들은 관음포를 향해 저어 가고 있었다.

싸움터를 빠져나가 먼바다로 달아나는 적선 몇 척이 선창 너머로 보였다. 밀물이 썰물로 바뀌는 와류 속에서

■ 와류(渦流) 소용돌이치면서 흐르는 물.

적병들의 시체가 소용돌이쳤다. 부서진 적선의 파편들이 뱃전에 부딪혔다. 나는 심한 졸음을 느꼈다.

내 시체를 이 쓰레기의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싶었다. 졸음이 입을 막아 입은 열리지 않았다. 나는 내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 장수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드러냄

자연사에 안도했다. 바람결에 화약 연기 냄새가 끼쳐 왔다. 이길 수 없는 졸음 속에서, 어린 면의 젖 냄새와 내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 장수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드러냄 과거 회상

젊은 날 함경도 백두산 밑의 새벽안개 냄새와 죽은 여진의 몸 냄새가 떠올랐다. 멀리서 임금의 해소기침 소리

관련 : 영화의 플래시백(flashback : 장면의 순간적인 변화를 연속으로 보여주는 기법으로 과거 회상 장면 등을 나타낼 때 주로 쓰임)

■ 해소 '기침'을 한방에서 이르는 말.

가 들리는 듯했다. 냄새들은 화약 연기에 비벼지면서 멀어져 갔다.

함대가 관음포 내항으로 들어선 모양이었다. 관음포는 보살의 포구인가. 배는 격렬하게 흔들렸고, 마지막 고

죽음을 자비롭게 받아주는 항구

■ 보살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 또는 모든 중생을 이르는 말로 대중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수행자, 구도자 등의 의미임.

비를 넘기는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선창 너머로 싸움은 문득 고요해 보였다.

〈세상의 끝이…… 이처럼…… 가볍고…… 또…… 고요할 수 있다는 것이……,〉 칼로 베어지지 않는 적들

죽음 〈 〉 역설적 표현[1권 1단원 1과 강의록 참조]

을…… 이 세상에 남겨 놓고…… 내가 먼저……, 관음포의 노을이…… 적들 쪽으로…….

적들을 섬멸하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냄

▶노량 해전에서 죽음을 맞이함

전체적인 구성 단계로 보면 제시문은 〈결말〉 부분에 해당